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기 현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강 희 경

Dept. of Child Study and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 : Ki Hyun Kim

Dep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Doctoral Course : Hee kyung 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difficulties for a working mother having children from infant to preschooler. Relevant works were reviewed to collect 44 items for the questionnaire from the previous researchs, and additional 34 are combined as a set of measure items. The 78 items were analyzed for the fitness of structure based on the chi-square test and Cramer's V coefficients, and 35 were selected as a final set for the questionnaire. Further factor analysis on the 35 items showed that they could be selected 32 items of the 35 item scale and composed of 3 subscales; namely, the first factor(12 items) as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the second(12 items) as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and the third(8 items) as 'guilty by the parenting by others'.

This final questionnaire composed of 32 items was also tested for the concurrent validity based on Pearson's correlation with Goldberg's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which is a well-known index to represent the socio-psychological stress. The correlation factor is .41($p < .001$), which justifies the fitness of the newly designed

questionnaire. To find the confidence level, the Cronbach α was evaluated, which results .88 for the overall questionnaire and ranges between .76 and .82 for each subscale.

This parenting scale can be also utilized as a measure to exploit proper programs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 parent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family function.

I. 서론

한국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됨에 따라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983년 342만명에서 1992년에는 51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여, 1983년에는 73.2%였던 것이 1992년에는 76.7%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그러나 이러한 취업모 현상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취업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취업모 개인의 노력에 의해 힘들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직업역할, 어머니역할, 주부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취업모에게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역할은 바로 어머니역할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Menaghan & Parcel, 1981), 자녀중심적인 한국 가족의 경우 어느 계층이든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보여지지만,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식적 영유아기 탁아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녀양육 대안을 찾지 못한 취업모의 심리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백경임과 강희경, 1995).

최근들어 어머니의 자녀양육상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취업모의 자녀양육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가족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의 하나(안지연, 1992; 장병옥, 1986; 전경아, 1991)로 다루고 있어서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양

육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정상아와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비교(김태련·박랑규·이경숙, 1992)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연구(김영미, 1990; 김희조, 1994; 배인숙, 1993; 안지연, 1992; 윤수영, 1992; 이귀원, 1996)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일반아동의 어머니가 갖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다. 아동학 및 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양육스트레스 연구(고성혜, 1994; 송주미, 1992)가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이라는 주요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채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한국 문화에 맞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원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양육 문화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양육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취업모가 겪는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하여 나아가서는 취업모와 그 자녀를 위한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지지체계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양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타

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일반적인 스트레스 영역 외에 가족 생활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별적 정의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안지연, 1992; 장병옥, 1986; 전경아, 1991)으로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으로 인간의 정상적 발달과정과 가족생활은 필연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Laster, 1981). 즉 모든 가족은 생활주기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rky & Hanson, 1991). 가족생활에 있어 자녀의 출산, 학교입학과 같이 중요한 생활사건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으로,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enaghan, 1983, 재인용). 이러한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양육스트레스란 구체적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고성혜, 1994).

2. 양육스트레스의 측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개념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Crnic & Greenberg, 1990). 많은 스트레스 연구(김희조, 1994; 송주미, 1992; Abidin, 1990; Berkey & Hanson, 1991; Laster, 1981)에서 이혼, 가족원의 죽음,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생활사건은 대부분의 가족에

게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케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범주화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하다(Crnic et al, 1990). 실제로 Kanner 등(1981)의 연구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활사건보다도 더욱 위협적이 되기 쉽다고 보았다(한미현과 유안진, 1995, 재인용).

Crnic 등(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중요하지는 않으나, 잠재적인 스트레스 사건으로 보고,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는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척도임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에 의해 개발된 일상적 양육스트레스(Parenting Daily Hassles) 척도는 언제나 어머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영아기 자녀의 행동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최근들어 수행된 양육스트레스 연구(김희조, 1994; 박해미, 1994; 배인숙, 1993; 송주미, 1992)에서는 대부분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조기진단, 부모교육이나 심리 치료 등과 같은 개입의 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대규모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총 120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구는 아동영역 47문항, 부모영역 54문항, 그리고 중요한 생활사건의 경험유무를 묻는 생활스트레스 1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영역과 부모영역은 5점 Likert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 하위영역에서 양육기능과 보다 밀접한 것은 부모영역으로, 이 영역은 다시 우울, 애착, 역할의 제한성, 유능성,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등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본 도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업모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Abidin (1990) Cmic 등(1990)의 일상적 스트레스 외에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와 타인양육이라는 조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정할 수 있다. 즉 자녀양육이 전적으로 어머니역할이라는 전통적 사고가 존재하는한 자녀를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게 맡겨두고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어머니들이 겪어야하는 심리적 죄책감 내지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Belsky, 1992).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취업모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요인은 일상적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 외에 타인양육에 따른 죄책감 내지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주 및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기 자녀를 주당 20시간 이상 타인양육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취업모로, 표집은 연구자를 통한 편의표집을 하였다. 주당 20시간 이

상의 타아로 제한을 둔 것은 출생후 1년내에 탁아시설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보내는 것이 애착의 질에 위험요인이 되며,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Belsky(1986)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1997년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이용된 질문지는 총 236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고찰 및 취업모와의 면접방법을 통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8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44문항을 구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의 Parental Distress요인과 Cmic 등(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및 Mann 등(1987)의 Maternal Guilt Scale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미처 감안하지 못한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0명이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20-30분 내외였다.

<표 1> 연구대상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N=236)*

변 인	내 용	빈 도(%)	변 인	내 용	빈 도(%)
어머니의 연령	20대	49(20.8)	가족형태	핵가족	168(76.0)
	30대	176(74.6)		확대가족	53(24.0)
	40대	11(4.7)	자녀의 성별	남	135(57.2)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115(49.8)		녀	101(42.8)
	전문대졸	49(21.2)	자녀의 연령	3세이하	76(32.2)
	대졸	60(26.0)		3-6세	160(67.8)
어머니의 직업	대학원이상	7(3.0)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63(26.7)
	전문·관리직	31(15.8)		둘째	151(64.0)
	사무직	65(33.2)		세째이상	22(9.3)
	판매·근로직	63(32.1)			
	기타	37(18.9)			

*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연구자는 면접참여자에게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구체적 일상양육상황에서 취업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면접과정을 통해 추출된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과정을 통해 구성된 문항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여 34 문항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78문항이 선정되었고, 본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문항양호도 분석을 하기 위해 χ^2 검정과 Cramer's V계수를 구하였다. 변별도는 응답 총점 분포를 기초로 하여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집단을 선정한 후 각 문항별 반응 빈도가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을 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V계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모델은 주요인분석을, 회전방법은 사각회전방법인 promax를 실행하였다. 추출요인의 결정은 Scree 검증과 설명변량을 참조하여 정하였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 구성된 최종 문항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Goldberg(1980)의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점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끝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양호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개발을 위해 구성한 78문항이 변별도 면에서 양호한 특

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χ^2 값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는 χ^2 값과 Cramer의 V계수가 만족스러운 변별도 기준에 의해 추출된 35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2> 문항양호도

문항	χ^2 값	Cramer의 V계수	문항	χ^2 값	Cramer의 V계수
7	31.95***	0.52	44	41.08***	0.59
10	31.01***	0.51	45	51.09***	0.66
14	41.66***	0.59	46	46.53***	0.63
15	50.29***	0.65	50	33.19***	0.53
21	49.43***	0.64	52	38.53***	0.57
22	30.93***	0.51	53	30.32***	0.51
23	35.00***	0.54	54	46.02***	0.62
24	32.31***	0.52	55	46.11***	0.62
25	34.24***	0.54	56	39.41***	0.58
28	36.56***	0.55	57	32.39***	0.52
29	36.22***	0.55	62	35.48***	0.55
30	45.84***	0.62	63	42.36***	0.60
31	50.25***	0.65	65	39.99***	0.58
38	47.86***	0.63	68	36.54***	0.55
39	50.90***	0.65	74	31.11***	0.51
41	36.06***	0.55	76	51.45***	0.66
43	44.64***	0.61	77	33.68***	0.53
			78	44.09***	0.61

1. 문항번호는 원 질문지 번호임. *** p < .001
2. 추출된 35문항만을 기재하였음.

2. 타당도

문항양호도 검증을 통해 추출된 35문항들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모델에는 주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료수집과 측정상의 오차가 있다는 한계로 인하여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Eigen값 이외에 Scree 검사와 설명변량을 참조하였다. 35문항을 이용한 주요인분석의 결과, Eigen값은 6.48, 1.80, 1.50, 0.95, 0.86의 순으로 5요인이 전체 변량의 92%를 설명하

였다. Eigen 값이 1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3요인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Scree 검사 결과에서도 3요인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3요인은 전체의 77%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요인 방안을 채택하였다.

회전방법은 요인간의 상관이 없다는 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정현숙, 1992), 사각회전방법(Oblique Rotation)인 Promax를 실행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한 3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개념적으로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항 1개(29번 문항)와 요인부하량이 낮은 2개 문항(14, 65번 문항)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총 3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첫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1%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인을 구성하는 12문항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케 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와 같은 것이 있다.

두번째 요인 역시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4%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들 문항은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양육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문항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 기저귀가 젖은채로 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다’,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이렇듯 본 연구의 구성타당도 검증과정을

<표 3> 양육스트레스의 요인분석

(N=236)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h ²
45	.69	-.07	.09	.55
46	.67	-.12	.14	.53
25	.61	-.14	.06	.47
31	.59	.14	-.13	.44
30	.59	.15	-.07	.45
28	.49	-.02	-.01	.39
38	.48	.10	.04	.37
24	.44	.09	-.04	.34
39	.37	.05	.17	.32
21	.35	.14	.09	.39
22	.35	.08	.02	.31
76	.32	.11	.23	.35
55	-.06	.75	-.04	.55
54	-.05	.74	.02	.57
53	-.06	.49	.11	.33
52	-.02	.42	.16	.27
15	.09	.42	.09	.32
78	.11	.42	.16	.41
7	.28	.37	-.11	.35
23	.37	.35	-.11	.38
56	.18	.35	.06	.35
63	.01	.31	.20	.26
10	.20	.30	-.04	.24
68	.23	.29	-.02	.28
44	-.01	-.07	.76	.57
43	.03	-.03	.76	.59
62	-.06	.07	.61	.42
77	.06	.10	.49	.48
74	-.04	.17	.49	.47
41	.14	.01	.42	.38
50	-.04	.21	.33	.30
57	.11	.01	.30	.22
Eigen값	6.48	1.80	1.50	
설명변량	.51	.14	.12	
누가변량	.51	.65	.77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1.00			
요인 2	.41	1.00		
요인 3	.37	.26	1.00	

거쳐 추출된 세 요인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가정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주요 하위요인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32

문항에 대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Goldberg (1980)의 GHQ와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GHQ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4점)’, ‘항상 그렇다(1점)’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도구는 기존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들이 문항수가 너무 많고, 정상적인 인구집단보다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 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본 도구는 선행연구(Goldberg & Huxley, 1980)을 통해 높은 신뢰도가 타당도가 인정되었다(장세진, 1992, 재인용).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평상시 하는 일에 대한 집중곤란,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결정능력의 어려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억압적 증상이나 행동상의 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GHQ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측정도구가 숫적으로 적을 뿐더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 신뢰도가 타당도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며,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어머니역할(Broman, 1991)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스트레스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이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양육스트레스 32문항 총점과

GHQ점수와의 상관계수는 .41($p<.001$)이며, 각 하위 영역별 상관계수에 있어서도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과는 .31($p<.0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요인과는 .47($p<.001$), 끝으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과는 .20($p<.01$)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3. 신뢰도

이상의 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구성된 32문항의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8이었고, 각 하위 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76에서 .82로 나타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표 5〉).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겪는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44문항과 연구자가 수집한 34문항을 합쳐 모두 78문항에 대한 문항양호도 분석을 위해 χ^2 검증과 Cramer's V 계수를 산출한 결과 35문항을

〈표 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하위요인과 GHQ 간의 상관계수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GHQ	.31***	.47***	.20**	.41***

** $p<.01$ *** $p<.001$

〈표 5〉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Cronbach α	.82	.79	.76	.88

추출하였다. 이 35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12문항)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두 번째요인(12문항)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세 번째 요인(8문항)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32문항에 대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인 Goldberg의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와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결과 $r=.41$, $p<.001$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공인타당성을 지지해 주었다. 또한 신뢰도를 알아보기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Cronbach α 계수는 .88이었고,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76에서 .82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문항양호도, 타당도, 신뢰도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된 본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한 자녀양육시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자녀양육스트레스 척도는 부모자녀관계나 부모교육 및 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어질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구성상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실시하여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간 상호인지의 차이나 특성을 규명해 보므로써 보다 유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2)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김태련·박랑규·이경숙(1992). 자폐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능력 지각과의 관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106-116.
- 4) 김희조(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배인숙(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백경임·강희경(1995).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 8)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안지연(1992).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일 연구-정상아 가족과 자폐아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윤수영(1992). 자폐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1) 이귀원(1996). 통합여부에 따른 학령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장병옥(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3) 장세진(199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4) 전경아(1991). 도시부부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서울시 부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정현숙(1992). 가족연구에서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 공변량구조분석의 이용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4집, 99-114.

- 16) 한국여성개발원(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17)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18)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19) Belsky, J.(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7.
- 20) Belsky, J.(1992). Consequence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held June 19-20 at University of Nevraska. pp. 83-94.
- 21) Berkey, K, M., & Hanson, S, M, H.(1991). Pocket Guide to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Year Book.
- 22) Broman, C. L.(1991). Gender, Work-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09-520.
- 23) Cm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24) Goldberg, S., Morris, P., Simmons, R., Fowler, R., & Levinson, H.(1990). Chronic Illness in Infancy and Parenting Stress: A Comparison of Three Groups of Par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5, 347-358
- 25) Laster, J, F.(1981).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7-19.
- 26) Menaghan, E, G.(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A Pan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71-386.
- 27) Menaghan, E, G., & Parcel, T, L.(1981).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Research in the 1980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pp.361-380). Minneapolis: NCFR.
- 28) Mann, M, B., & Thornberg, K, 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부 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요 인	문항번호*	문항 내용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45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46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25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31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30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28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38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24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39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가 어렵다
	21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22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76	아이가 태어난 이후 퇴근 후에 밀려 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55
54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3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52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78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7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23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56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63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0	아이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9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44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기저귀나 옷이 젖은 채로 있어서 화가 난적이 있다.
	43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얼굴이나 손이 더러워서 화가 난 적이 있다
	62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거칠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77	아이의 잘못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74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41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된다
	50	할머니에게 애를 맡기게 되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57	근무하는 동안 아이에게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가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적이 있다	